

第11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3月 29日(金) 10時02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 1. 2002년 한·일월드컵 준비상황 보고

審査된案件

- 1. 2002년 한·일월드컵 준비상황 보고 2面

(10時02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서 밤낮의 길이 가아진다는 춘분(春分)도 지났고 청명(淸明)도 며칠 남지 않았건만 아직까지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의정활동의 마지막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 먼저 힘찬 건강과 밝은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물론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董連浩 行政管理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년 여 동안 우리가 일궈놓은 지방자치가 이제 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일이 다 마찬가지로 겉만 큰 뜻을 품고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여 결국 뜻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제도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가 대가없이 흘린 땀들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간

절히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혹시라도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구정을 잘 꾸리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결코 마음에 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사상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 바람에 초등학교가 휴교를 하는가 하면 항공사, 산업현장, 농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황사는 이산화황이나 산성비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달리 지상학적 현상에 의한 자연발생적 측면이 강해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을 두루 보살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 발생시 대책과 예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60억 세계 인구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600년 동안 서울의 중심

부로 문화, 행정, 교통의 중요한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월드컵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를 개최하고 손님들을 초청하였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관심과 사랑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오늘 집행부로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준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사람은 시작보다는 끝맺음이 좋아야 그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潤植 議事擔當主事の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李潤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의 당면 현안업무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 와 관련된 제반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1. 2002年 韓·日 월드컵 準備狀況 報告

(10時08分)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한일 월드컵 준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안녕하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지

난 3월 1일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제119회 임시회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의 종로구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드컵대회 개요, 월드컵대회 지원방향 그리고 우리 구 주요 준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2年 韓·日 월드컵大會 鐘路區 準備狀況 鐘路區 월드컵 實踐課題

(월드컵推進團)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월드컵 관련 주요업무는 반드시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월드컵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월드컵 자원봉사자가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洪起瑞 幹事님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월드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이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컵과 관련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자원봉사단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약 6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으로 가입된

분은 종로구 자원봉사단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나 별도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에 자원봉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별도로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되어서 김이곤 씨인가가 단장이 아닙니까? 그 단체 말고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옛날에 88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듯이 이번 월드컵도 그런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자원봉사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지금 洪起瑞 幹事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모집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지 우리 구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 월드컵기획단에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지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관장하는 것이 없고 다만 우리는 자원봉사단만을 이용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 견학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자들만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동 단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알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지금 그동안에 월드컵경기장 견학을 여러 분야에 걸친 많은 분들이 참여

를 하셨습니다. 이후에라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교통편을 준비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교통편은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洪起瑞委員 명단만 제출하면 되겠네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장이 오셔야 될 자리인데 지금 우리 이화동, 충신동 저쪽으로 보면 타지역보다 쓰레기가 5배 10배는 더 나올 거예요. 충신동, 이화동, 창신1동, 동대문시장 그쪽 주변으로.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에 이화동을 한번 돌아왔더니 온 동네가 쓰레기통이에요. 대문 앞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 가지고 부구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구청장!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차 타고 빨리 오라고, 큰일났다고, 이게 아름다운 종로냐고, 그랬더니 생활복지국장, 청소과장, 용역회사 상무, 우리 동장 와 가지고 돌아다니던 일이 있는데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용역회사에 어떤 대책을 늘려준다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서울 특히 종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완전히 충신동, 이화동 쪽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뭐 아름다운 종로가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더러운 종로예요. 솔직한 얘깁니다. 서울에서 제일 더러운 종로입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평소 때에도 차가 딱 차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수행차나 공무원들 개인차는 안 가지고 와야죠. 그 동안만이라도 차를 비워놓고 무료 주차를 하라고 해야지 평소 때에도 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입으로만 무료 주차하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도 걸어오시

든가 택시타고 오시든가 차는 갖다놓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만큼씩 용자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朴鍾植委員님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화동, 충신동 지역에 쓰레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후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을 월드컵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용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마당에 약 24면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면적의 24면 정도만 외국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평상시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장이었는데 별도의 24면을 확보를 하자면 저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도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 직원들도 차를 주차를 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시설자금 지원에 관해서 용자에 관해서는 이게 월드컵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용자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마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런 명칭을 활용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선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업소당 5,000만원 한도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를 하는데 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의 저리로 용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鍾植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서별 실천과제 목록 27편을 보면 주요 공사장 주변환경 정비가 있어요. 아까 朴鍾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데 요즘 봄이 되면 각 동네마다 집을 수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터 집을 수리하게 되면 길가에다 전부 지저분하게 내놓고 수리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울타리를 전부 쳐놓고 모든 자재를 그 안에 두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건축자재, 폐기물을 한쪽에 잘 뒀다가 치우든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건축운반차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공사장 주변 정리하는 것과 운반차량 청결 유지는 즉시 관련부서에서 실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부서별 실천과제 목록을 보면 각 과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인데 그 동안에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는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시행정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전한 행락질서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宣相善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천과제 33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평상시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월드컵 기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업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마는 수

반되는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자치행정과는 나가서 캠페인을 할 겁니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불과 월드컵 D-63이죠?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저것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는 다져가야 됩니다. 600억의 인구가 한일월드컵을 시청할 텐데 그 동안에 4대 지방선거와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朴鍾植委員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행정을 보세요. 길가를 보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것은 평상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공사장에 아무 대책도 없이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진흥과 문화유산 가꾸기는 월드컵 기간에만 특별히 가꾸니까? 문화유적지를 어떻게 가꿀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宣相善委員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길거리, 지금 보도를 보면 각종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인데 그것은 단속도 안 하면서 무엇을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宣相善委員님께서 노점상 단속의 월드컵 기간 동안의 방향을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 29쪽에 일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월 10일까지 1단계로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또 2단계로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이를테면 종로1가 북측, 종로3가 부분, 우정국로 등 시범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역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3단계로 4월초부터 5월말까지는 나머지 지역을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순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장에는 우리 宣相善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이 잘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동안에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별도의 정비지침을 준비해서 시내버스 정거장, 지하철 진출입로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일정한 간격을 노점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준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향후에 노점상을 정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평상시 가로정비, 노점상 수없이 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닳쳐와서 시작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몸싸움도 하게 될 텐데 미연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월드컵이 코앞에 닳쳐서 한다면 만약 단속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하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좋겠습니까? 미연에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보물142호인 동묘 옆을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꿈쩍하지 못하게 하면서 월드컵기간 동안에 한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미연에 하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수없이 평상시에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때가 온다고 그때 잠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청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역에서 각 의원들이 어디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치워달라고 말해도 치워주지 않아요. 더 쌓여갑니다. 지

금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봉투에 담아서 하게 하면 겨우 치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어제 저희 동네만 돌아도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게 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한 차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 청소를 하니 뭐를 하니 (안)만 제시해놨지 실천도 하지 않을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쓰레기나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도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간이 다 왔는데 지금 공사한다는 말이요? 지금 이미 다 끝났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맞는 말씀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주변의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바로 목전에 두고 평상시에 잘 못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역점을 두어 시행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지이고 또 지금 각종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 하는 그런 보수를 하게 될 공사들은 5월 15일까지는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한 일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세계인들 눈에 비교가 될까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월드컵이 잘 되어야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이 잘못 되면 모든 국민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대비도 해주고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철저히 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어차피 큰 잔치 놔두고 뭐니뭐니해도 가장 요구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 건강이 제일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몸 가지고 큰 일을 치르려면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안타까운 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 계획이 있죠? 여기를 보니까 효자로나 울곡로는 꽃길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까? 사직로, 울곡로, 창경궁로, 삼청동길, 동소문로가 있는데 명륜3가동에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600년 전통을 자랑하고 유럽회관이 있어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를 가는 길도 화분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 그쪽에도 화분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모르긴 해도 그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洪起瑞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에 화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사실 이 부서별 실천과제는 아까 宣相善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1,300여 종로구 직원들께서 실천을 제대로 해주시면 진짜 아름다운 종로가 되고 돌아오는 종로가 될 텐데 정말 잘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국민이나 구민들이 월드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TV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16강 코리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가슴에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300여 직원들께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월드컵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7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洪承台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總務課長 金周會
企劃豫算課長 林星圭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